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7월 8일 (제95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수도가성(水到渠成)

수도가성(水到渠成), ‘물이 흐르면 자연히 도랑이 난다’는 뜻으로, ‘때가 오면 일이 자연히 이루어지거나 학문을 열심히 닦아 조예(造詣)가 깊어지면 명성(名聲)이 저절로 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가만 뒤도 때가 되면 성사되고, 길이 난다는 게 아니다. 계속, 끊임없이, 부단히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번 물을 흘렸다고 도랑이 생길까. 곧 말라 아무 흔적도 없게 된다. 숲길을 한 번 걸었다고 길이 생길까. 하룻밤에도 잡초는 무성해진다. 그러므로 술하게 물을 흘려야 한다. 그러면 도랑이 생기고, 그것이 시내가 되고, 시내가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된다.

나는 베트남 집회를 앞두고 있다. 그것이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나는 계속 베트남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하며, 베트남 교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것이 도랑을 이루고, 도랑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될 때까지 나는 계속할 것이다. 그러다보면 언젠가 자연스레 베트남을 복음화하지 않겠는가.

처음부터 바다를 만들려고 하지 마라. 처음부터 너무 큰 것을 꿈꾸지 마라. 많은 물을 한꺼번에 부으면 도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퍼져 어디에도 길이 나지 않는다. 무리와 욕심은 동색이니 버려야 한다.

‘수도가성’을 이루는 길은 작은 습관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매일 조금씩 물을 흘리는 습관이 대성할 수 있는 길이다. 하루 몇 개의 영어 단어를 외우다 보면 영어에 능숙해지고, 하루 성경 한 장을 읽다 보면 완독하게 되고, 하루 계단 몇 개씩 오르다 보면 건강해지고, 매일 부모님께 전화하다 보면 효자가 되고, 폰돈이라도 저축하다 보면 목돈이 되는 것, 그것이 ‘수도가성’이다. 그것은 조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으로 때가 되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공의 비결, ‘수도가성’에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일하신다

지난 2000년 초, 멀리 우크라이나(Ukraine)에서 최영석 목사라는 분이 찾아왔다. 그는 1991년 평신도 선교사 시절, 우연히 보게 된 목사의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분을 우크라이나로 모셔야겠다는 꿈을 품고 기도하며, 당시 제자로 키우던 정치물전도사(현 슬라바 목사)에게 한국어를 집종적으로 익히라고 독려했다. 슬라바목사는 스탈린(Stalin) 치하의 강제이주정책으로 중앙아시아를 거쳐 우크라이나에 정착한 고려인 2세로 모스크바(Moscow)대학을 나온 수재였다. 그는 오직 목사의 비디오테이프만을 보며 한국어를 마스터했다. 이것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머나먼 동유럽의 나라, 우크라이나에서 집회를 열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다.

양 육대주를 누비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사와 표적을 통해 강력히 증거했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마침표가 없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해왔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일하신다. 이조석 목사님 한 사람의 변화가 국내는 물론 지구촌을 성령으로 들쭉여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던지신 그 성령의 불에 불붙은 결과,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불붙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동남아 지역에 그 불을 던지려하고 있다. 이 또한 한 사람의 변화가 그 통로가 되고 있다. 이미 한국에 다녀가 잘 알고 있는 폴킴(Paul Kim) 선교사는 베트남 여인과 결혼하여 정착한 후 13년 넘게 베트남 및 인도차이나 지역에 선교를 하

서 출발한 남미 선교가 그러했다.

하늘에 ‘명성(名聲)’이란 두 글자를 보여 주셨다는 목사의 꿈, 열어붙어있는 강독을 거닐며 목사님과 함께 찬송을 부르니 강이 녹으며 수많은 사람들로 변하더라는 이현숙 선교사의 꿈, 그 꿈을 믿고 가슴에 품은 세계교구의 비전을 차근차근 실천해나간 발걸음이 모여 오늘 예수중심교단 세계선교의 발자취를 이루고 있다. 그 길이 결코 녹록치 않았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베트남도 동일한 역사로 진행되고 있다. 악한 마귀 역시 쉬지 않고 훼방을 일삼고 있고, 많은 어려움 또한 앞을 가리고 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듯,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고, 기도는 응답받아놓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여신 문을 그



이현숙 선교사 한 사람의 변화가 남미선교의 한 획을 그었다(2006년 멕시코 메리다 집회 광경)

스페인어 통역관 이현숙 선교사의 뒷이야기도 감동이다. 아무 연고도 없는 아르헨티나(Argentina) 선교를 명받고 혈혈단신 여인의 몸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 들어가 선교하던 중, 소속 교단으로부터 지원이 끊기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 은혜 받았던 우리 교회로 전회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목사님을 만나고 남미 선교의 주춧돌을 놓았다. 그 이후의 행적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집회영상을 통해 얼마나 큰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남미를 성령으로 뒤덮었는지 잘 알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새천년부터 지금까지 오대

고 있었다. 그는 YouTube의 목사님 집회영상을 본 뒤 큰 충격을 받았다. 100번 이상 목사님의 영상을 보며 모방하려 노력했다. 한국까지 찾아와 목사님을 직접 만났고, 베트남 교회연합회 임원들과 함께 호치민(Ho Chi Minh)에서 대집회를 계획하였다. 그 결과 소속 교단으로부터 모든 지원이 끊기고 이젠 우리와 생사고락을 함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매사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 만고의 진리다. 단 1명으로 시작한 목사님의 목회 34년의 역사가 그랬고, 한 가정에서 시작했던 오늘의 일 본교회들이 그러했으며, 아르헨티나 그레고리(Gregory) 목사의 자그마한 교회에

누가 닿을 수 있겠는가.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라’는 목사님의 다짐은 지금까지 숭한 역경을 믿음으로 뛰어넘으며 달려온 역사처럼, 또다시 베트남에서, 그리고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동인(動因)이 되리라 확신한다.

베트남 및 동남아시아 선교를 위해, 그리고 폴킴 선교사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모든 악조건을 넘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베트남에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열어가리라 믿기 때문이다.

한은택 목사

henry8828@naver.com

하계산상집회

일시: 7월 23(월)~8월 2일(목)

장소: 장성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533-9191

호텔예약: 7월 17일(화-첫째 주), 18일(수-둘째 주) 오전 정각 10시

홈페이지 예약(www.jcc.tv)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수1:5~18)



믿는 데가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성경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매일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를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산다는 말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나’, ‘뭘 해야 하나’..., 이렇게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매일 살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 빠듯한 생활 등 현재에 대한 두려움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을 들고, 저축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이력을 쌓는 등, 뭔가 믿는 구석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사이자 저의 러시아어 통역관인 슬라바 목사가 손녀를 한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아직 어린 손녀를 이국땅에 맘 놓고 보낸 것은 믿는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접니다. 그가 제게 ‘손녀를 잘 부탁한다.’고 전화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걱정 마.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라고 했습니다. 그럼요, 믿는 것이 있으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뭘 믿고 삽니까?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불안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꼭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뒤에 붙이셨습니다. 전지전능 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줄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걱정 끝, 두려움 끝, 고민 끝 아닙니까?

두려움은 삶의 암적 존재다

거인 골리앗을 상대한 어린 다윗은 믿는 데가 있어서 담대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삼상17:45). 바로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날이 걱정되십니까? 그래도 아브라함 보다야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외로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15:1).

‘장사가 잘 되려나?’, ‘경쟁이 센데 이게 잘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는데, 파는 우물마다 물이 솟구쳤습니다. 샘의 근원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그랄 목자들이 자기네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은 다투지 않고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거기서도 물이 펴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이 수맥을 잘 찾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다.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창26:24).

상황이 막막합니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형을 피해 외가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 길에 루스(벤엘)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려고 하는데 그 때 하나님이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찌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창28:15). 그의 인생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요셉을 볼까요?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창39:23).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형통했고, 노예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에게 바통을 물려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수1:5~6).

모세도 역시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유언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신31:7~8).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열 명의 부정적인 자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했을 때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민14:9).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우리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우리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사43:2~3).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그 샘을 아십니까?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다윗이 담대했던 것은 ‘여호와와 나의 목자’로 항

상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솔로몬에게도 담대함을, 담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와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대상28:20).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

사도 바울이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롬8:31).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던 느헤미야가 도비야와 산발랴트 휘방하고 협박하자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느4:14)고 백성들을 독려했음을, 또한 기드온의 300명 용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때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군사를 다 쳐부술 수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슬라바 목사와 저는 2003년 키르기스스탄 집회 때 KGB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울던 아이도 ‘KGB하면 울음을 그친다’던 바로 그곳 말입니다. 슬라바 목사와 저는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한참을 대기했습니다. 그러나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KGB 요원을 만났을 때 저는 담대하게 “할렐루야!” 하고 악수를 청했고, 슬라바 목사는 러시아어로 “이 목사님은 세계 72개국에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다. 이 목사님을 건드리면 세계가 당신 나라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와 슬라바 목사의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자 무서워 난리를 치며 주무시던 주님을 깨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마8:26)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담대하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사12:2). 할렐루야!

현명한 투자자

현명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도 지난 수십 년간 주식과 채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치투자의 창시자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저서 ‘현명한 투자자’에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며 아무리 시장이 급변하더라도 건전한 투자 원칙이라면 자주 변해서는 안 되고, 시장에 휩쓸리면 거의 예외 없이 망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투자자를 곤경에 빠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성을 잃고 시장에 휩쓸리기 쉽기 때문이지요. 투자할 때도 항상 건전한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내재가치를 평가하거나 계량화하는 습관을 가지면 실수를 줄여줍니다. 내가 지불하는 시장가격과 획득하게 되는 내재가치를 비교하여, 매수하기에 충분히 낮은 가격인지 따져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향수가 아니라 식료품을 사듯 실용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초보자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화려하지는 않아도 괜찮은 투자 성과를 올릴 수 있지만, 초보자인데도 짧은 지식으로 잔머리를 굴리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명한 투자의 비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전마진(margin of safety)’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전마진이 크면 미래 실적을 정확하게 예측하느라 애쓸 필요가 없고, 단지 미래 실적이 대폭 하락하지 않으리라는 확신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식도 우량 채권처럼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안전마진은 주가를 초과하는 내재가치, 또는 정상 이자수익률을 초과하는 예상 이익과 배당금입니다. 그래서 대표주에 투자하면 대단한 통찰이나 선견지명 없이도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는 것은 우량주를 높은 가격에 살 때가 아니라, 호황기에 부실주를 매수할 때였습니다. 따라서 안전마진이 있는지 판단하려면, 불황기를 포함해서 장기간 좋은 실적을 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처럼 하는 투자가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회사 소유권의 일부를 획득하는 것으로 주식을 매매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도 일종의 사업이기에, 사업을 운영하듯 원칙을 지키면서 실행해야 합니다. 합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확실한 계산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해선 안 됩니다. 사업의 바탕은 낙관론이 아니라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눅14:28). 목사님께서서는 무슨 사업이든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계획이나 분석 없이 시도하면 100% 망하기로 계획된 사업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이미경 권사
lmkwdf@hotmail.com

거짓의 최후

여보게!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들어보았지? 언덕에서 양을 치는 소년이 있었네. 혼자서 양 떼를 돌보자니 심심했겠지. 그날도 무로하게 양을 돌보고 있던 소년의 머리에 문득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네. 바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고함을 치는 거였지. 자기 나름대로 그 후의 일을 상상하니 생각만 해도 너무 재미있었지. 소년은 이걸 실행에 옮겼네.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네. 이 소리는 마을에까지 들렸고, 동네 사람들은 잡히는 대로 몽둥이며, 쇠파를 들고 언덕으로 뛰어올라왔네. 올라와보니 소년은 너무 태연하게 풀 위에 앉아있었네. 다들 허탈하게 마을로 돌아갔지.

며칠 뒤, 소년은 또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질러댔네. 동네 사람들은 행여 소년이 다쳤을 새라 숲이 턱에 닿게 언덕으로 뛰어올라왔네. 그러나 역시 거짓이었지. 소년은 속으로 웃음을 지었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야. 소년은 목이 터져라 동네 사람들을 불렀네. “이번에는 진짜예요.” 하면서. 그러나 동네 사람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네. “저 녀석은 오늘도 거짓말

하는구나.” 했네. 결국 소년은 늑대에 게 잡혀 죽었네.

여보게!
거짓말하는 자의 최대 비극이 이것일세. 그가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준다는 거야. 사람들은 그런 자에게 진심이나 진실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결국 양치기 소년처럼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이 당하는 최대의 재앙이지.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 누구도 내 진심을 몰라준다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마음이 버선이라야 뒤집어서 보여주기라도 할 것인데 말일세. 그러나 그것이 안 믿어주는 사람 잘못이겠나? 믿지 못하게 거짓을 일삼은 장본인이 문제 아니겠는가.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으려면 작은 거짓이라도 멀리해야 한다네.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살게나. 진실은 만국통용화폐라네. 어디든 통한다는 거지. 솔직하기가 거짓하기보다 훨씬 쉽다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니까.

진실은 더딜 수 있지만 최후 승리자인 것을 깨닫게나.

朋友

용서하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한다. 짐승도 한다. 그런 사랑에 온통 마음을 뺏기면 천국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 예쁘고 아름답고 좋은 걸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그 해를 고루 비취시며, 고루비를 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토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다. 멋진 놈, 예쁜 여자, 누가 사랑 못하나. 이런 이기적인 사랑은 결국 천국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 사랑하니까 놓지 못하고 미워하니까 용서하지 못한다. 이기적인 사랑은 하지도 말고 미워도 말자. 증오, 분노, 모두 천국 가는 길의 걸림돌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세상의 가치, 사랑, 미움, 다 헛된 것 아시고 준비하시고 평안히 가신다.

내 마음에 맺히면 그게 우상이다. 사랑에 맺히고 미움에 맺히면, 돈에 맺히고 쾌락에 맺히면 그게 우상이다. 하나님

보다 더 마음이 가면 우상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욕심 따라 탐심이 생기고 탐내는 것을 취하지 못하니 분노하게 된다. 그 분노는 나를 태운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용서하고 나를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 용서는 지혜자의 열쇠다. 천국 가는 열쇠는 용서다. 누굴 위해 용서할까. 날 위해.

우상이 땅에 남아 있으면 귀신 되기 십상이다. 떠도는 영혼이 된다는 뜻이다. 집착 때문에 갈 바 모르고 길을 잃는다.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요, 미운 것도 우상이다. 내 힘으로는 진정한 용서와 회개를 이룰 수 없다. 그마저도 의뢰해야 한다. 우리가 용서를 완성하고 호리라도 남김없이 회개할 때 그 옥에서 나오리라 하셨다. 이 세상의 감옥에서, 흉악의 결박에서 풀려나오는 것이다.

이광주 전도사
leekjlkj@naver.com



죽고자 하면 산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비록 16강 진출은 하지 못했지만 큰 감동을 선사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김영권 선수는 작년 이란과의 최종예선 9차전이 무승부로 끝난 후 “여러 가지 세부 전술들을 준비했는데 관중들의 함성소리가 워낙 커서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준비한 플레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삼양별은 6만 명이 넘는 관중이 들어차었는데 축구부 학생들을 데리고 경기를 관전했던 저로서는 시끌벅적했던 현장의 분위기를 익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발언을 두고 팬들의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부진했던 경기력을 응원한 팬들의 함성 탓으로 돌리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김영권 선수가 국가대표 경기에 기용될 때마다 팬들의 항의는 끊이지 않았습니 다. 그를 기용하는 감독과 협회까지 싸잡아 비난했지만, 김영권 선수는 월드컵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1, 2차전 연이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정적인 수비와 육탄방어, 그리고 동료들의 실수를 커버하는 헌신 플레이

에 외신들은 연일 호평하였고, 정점을 찍은 건 독일과의 최종전이었습니다. 마침내 ‘FIFA랭킹 1위’인 독일과의 3차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것입니다.

김영권 선수는 해외리그에서 선수생활을 하기에 국민들의 비난이 몰아칠 때 국가대표를 은퇴하고 높은 연봉으로 편안히 선수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고 모두가 자신을 대적하는 것만 같은 현실에서 결과로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1차전이 끝나고 뛰어난 경기력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골을 먹으면 죽겠다는 정신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사즉생 생즉사(死則生 生則死)’, 이순신 장군이 죽기 전에 했다는 명언. 실제로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던 말씀. 그리고 지금도 목사님을 통해 귓가에 쩌렁쩌렁 울리는 ‘죽고자 하면 산다’는 가르침.

수련회를 한 달 앞둔 나는, 지금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죽고자 하는 정신으로 임하는지 스스로 반성해봅니다.

이현승 전도사
coollee0817@naver.com

이긴 싸움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FIFA 랭킹 1위인 독일을 2:0으로 이겼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골을 넣었는지, 얼마나 잘 막아냈는지 궁금해서 우리나라 경기를 다시보기로 시청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으로 이긴 걸 미리 알고 보니 독일 선수가 아무리 골대 근처로 가도, 우리 선수가 실수를 해도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고 다만 어떻게 골을 넣을지 기대감만 남는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승리할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적의 위협, 나의 작은 실수가 두렵거나 절망되기보다 과연 어떻게 이기게 될지 기대만 남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감동하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믿고 뛰는 자들은 환란과 핍박에도 소망을 품으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곳에서 본 기골이 장대한 남

성들과 요새들은 무섭지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 다. 이미 믿음의 귀로 들은 하나님의 승리의 음성이 더 실제적이었기 때문입니다(민13~14). 자신보다 몇 배나 큰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역시 상대의 덩치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권세가 너무나 확실했기에 ‘어떻게 이길지’ 자신에게 최적화된 무기, 즉 전략을 찾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강요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끊임없이 나열하고, 못하는 핑계를 뉘 새 없이 제공합니다. 생각지 못한 태클이 들어오는가 하면, 억울한 판정으로 화가 나게 만들고, 날카로운 공격들로 우리를 좌절로 내몰지요. 하지만 우리가 두렵거나 가슴 철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요16:33)!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무조건 신뢰해도 될 만큼 실제적이며 믿음직한 진리입니다!

얼마 전, 저도 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 다. 어느 유명선교단체에서 앞으로 30년 후, 우리나라 기독교인구가 3%에 불과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힘을 잃고 믿음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험난한 세상 속에 던져질 것 같아 염려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그 예측은 틀렸다고 확신했습니 다. 그들의 연구보다 우리의 기도가 더 믿음직한 것이며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세상에 복음이 가득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깨어있다면,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다음세대에 잘 전달한다면 그 3%가 나머지 97%의 머리가 되어 이 땅을 이끌어갈 것이며, 그 3%가 다른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될 것이며, 그 3%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가장 칭찬받는 자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인명 집사
renming@daum.net

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엄청난 번민에 빠져서 돌아가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등산이나 여행을 갔다가 길을 잘못 접어들게 되면 돌아가거나 다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길은 살아생전에 그 길을 선택해야 하며 죽은 뒤에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Good News

일본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공원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일본 승려 한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주먹을 치켜들고 “고레가 야마다(이것은 산이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두 갈래 길을 그려가며 저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나 내가 가는 길이 서로 다르지만 결국에는 산꼭대기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

슨 뜻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나는 부처님을 믿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천국(극락)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말씀을 분명히 들려드렸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행4:12).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요14:6). 당신이 가는 그 길은 짧은 길이요, 막힌 길입니다.”라고 하

❀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터라

One's true colors will always show through.
家里的漏瓢拿到外面也会漏。

❀ 자녀 교육은 대를 이을 가업이다

Educating children is the family business they will carry on.
子女的教育就是传宗接代的家业。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우리 딸, 자궁경부암 백신 맞자

2016년 6월부터 자궁경부암 백신이 국가 예방접종백신에 들어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2005년 1월 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만 12~13세 여아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자궁경부암이 국가 예방접종대상 질병이 된 건 예방가능성과 감염성을 고려한 결과다.

자궁경부암의 거의 대부분이 사람유두종 바이러스로 인해 생긴다. 사람유두종 바이러스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병원체 중 하나로 지속 감염 시 사람유두종 관련암(자궁경부암, 외음부암, 항문암, 두경부암)등과 그 전암병변, 생식기 사마귀, 재발성 호흡기 유두종증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사람유두종 바이러스는 유전자의 형태에 따라 100여종이 존재한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암을 일으키는 고위험

타입으로 16번과 18번, 31, 33, 35, 39, 45, 51, 52, 58번이다. 이 타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자궁경부 상피세포에 돌연변이를 초래해 이행성증 단계를 거쳐 수십 년 후 암이 발생한다. 특히 16번과 18번이 중요하다. 이 두 타입이 전체 자궁경부암의 70%를 차지한다. 둘째는 저위험 타입이다. 암을 일으키지는 않는 대신 ‘콘딜로마’라는 사마귀 성병을 일으킨다. 6번, 11번, 40, 42, 43, 44, 54번이다. 6번과 11번이 사마귀의 90%를 차지한다. 콘딜로마는 외관상 보기 흉하고 완치가 안되는 골치 아픈 성병이다.

현재 한국에서 통용되는 자궁경부암 백신으로는 서바릭스 2가, 가다실 4가, 가다실 9가가 있고 서바릭스와 가다실 4가가 무료접종백신으로 지정되어 있다. 서바릭스와 가다실은 각각 장단점이 다른데 우선 가다실은 16번과 18번 이외 콘딜로마

성병의 90%를 차지하는 6번과 11번까지 예방하는 4가 백신이라는 돌보이는 장점이 있다. 영국 정부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국가필수접종제품으로 가다실을 선택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콘딜로마 환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판단이다. 반면 서바릭스는 16번과 18번만 예방하는 2가 백신으로 콘딜로마 예방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자궁경부암 자체의 예방효과는 면역증강제가 추가되어 16번, 18번 이외에 31번과 33번, 45번까지 추가로 교차반응을 통해 가다실보다 우월하다고 판단된다.

성경험이 없는 청소년기에 접종하는 것이 항체 생성효율이 높으므로 예방접종 잘 챙겨서 우리 자녀들을 자궁경부암으로부터 보호하자.

Dr. 조희경 집사
pearl9230@naver.com

마음에 합한 사람

세상을 살다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솔로몬이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찾았다는 게 그런 맥락이었을까.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자는 성경에 다윗 외에는 없었다. 과연 마음에 합한다는 건 무엇일까?

다윗은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편지를 시편에 많이 썼다. 그런데 다윗 외에도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성경에 여럿 나온다. 더군다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를 범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맞는 자라고 성경에 표현하셨다. 무결점한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혼을 내셨을 때, 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였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바로, 그것도 제대로 해소했다는 것이다.

100% 합한 마음이란 서로에게 완벽한 이상형이어서 갈등이 없고 다투지 않는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그런 갈등을 남김없이 잘 해소하는 요령을 터득한 관계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요령 중 하나는 하루하루를 살며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눈으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는 기도이다. 갈등을 즉각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응답을 하신다. 우리를 사랑과 평안으로 감싸주시는 방법으로 말이다. 비록 우리가 많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그 분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ofriendly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상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4장 28절)

계획하지 않는 자는 망하기로 계획한 자다